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장기화

일단 18일까지 협상 연장 ... 30일 국회 예산결산위 회의일까지 시한
 정부·민주당 성사 의지 커 ... 민주노총 21일 총파업 예고 강대강 대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데드라인인 15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린 이날까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타결을 보지 못하면서 협상은 장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일단 18일까지 협상을 연장하지만, 오는 30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예정일까지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로 해 실낱같은 희망은 남겨졌다. 타결을 위해서는 지역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강한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어렵게 투자 의향을 제출한 현대차를 붙잡기 위해서는 취지와 원칙에만 매몰되기보다 현대차가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를 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등의 총력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광주

시 지역 협상력을 키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역노동계와 합의문을 작성하고 협상을 일임 받은 광주시 협상팀이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별소득없이 협상을 마쳤다. 그러나 협상팀은 서울에 머물면서 18일까지 현대차를 계속해 만나기로 했다.
 시와 지역노동계가 적정노동시간을 40시간(1주 12시간 내 연장 및 휴일 근무)으로 설정하고, 적정임금을 매년 협약해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현대차의 문제점이 연일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와 현대차는 44시간 근무에 3500만원 초임연봉, 5년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물가상승률 등 반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시와 지역노동계의 합의문은 사실상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투자 매력에 급감하

면서 노조의 총파업 압박, 내부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만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등이 연일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의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 등이 가입된 민주노총과도 사실상 갈라지게 됐다. 민주노총이 21일 탄력근무제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난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여망만큼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고했다 우리 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 교시장 앞에서 시험을 마친 학생이 엄마와 포옹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성사 가능성 커졌다

문대통령, 싱가포르서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
 펜스 “북미 대화 진전 ... 北과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선택(Suntec)에서 문 대통령과 34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부탁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언급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을 강화해 눈앞에 닥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추동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맞물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맥락을 보면 북미 간에도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 속에서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핵화와 북미 대화 진전 가속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
 면담에서는 대북제재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당면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를 위한 실무 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시기·장소 등

의 미세한 내용까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을 협의했다”며 “양측은 지금까지 한미 간 확고한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남북관계-비핵화-북미 대화의 선순환 진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65주년을 맞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평가하고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수능 난이도 지난해와 비슷 ... 국어 어려웠다

문과 상위권 변별 어려워져
 이과 수학·과탐이 변별과목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영·수 영역 모두에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어려웠다고 평가 받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어는 93점, 수학(가)(나)형 모두 92점에서 형성될 것이라 전망이 광주 교사들에게서 나왔다. 절대평가 체제인 영어영역의 경우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인원 비율은 8.5%대로 예측됐다. <관련기사 6·7면>
 국·영·수 영역 모두에서 ‘딱히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과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과학탐구 영역과 수학이 변별 과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지난해 수능 국어가 비교적 어려웠던 데다, 이번 수능에서 지문이 긴 문제가 다수 출제된 탓에 독해력이 약한 수험생의 경우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수학의 경우 (가)(나)형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가)형의 경우 고난도 문제인 21, 29, 30번 문항이 1~2등급을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나)형은 고난도 문제로 분류되는 21, 30번은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나, 풀이 과정이 다소 복잡한 문제가 여럿 있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게 광주 교사들과 입시학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난도가 다소 올랐으나 문제 유형이 지난 6,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해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다는 게 수험생들과 교사들 전언이다.

사회탐구는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인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서 쉽게 출제돼 수험생 부담을 덜어줬다. 과학탐구는 전반적으로 쉽지 않게 출제됐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희리 현상이 올해도 유지될 것이라는 게 광주 교사들과 입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6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신발도유람
 - 경기도의 특별한 독서 공간 ▶18면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캠프 가다
 - “KIA 투수 왕국 재건하라”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Clean Energy, Smart KEPCO-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한국전력공사 KEPCO